교황님께서 청년들과 하신 밤새기도와 대화.

청년들의 희년. 토르 베르가타. 2025년 8월 2일 토요일.

---

질문 1 -- 우정에 관하여

교황님, 저는 둘세 마리아이고 23세이며 멕시코에서 왔습니다. 전 세계 많은 곳에서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대변하여 교황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형성해가는 우리 자신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문화는 특히 소셜네트워크 영역에서 기술에 의해 특징지어집니다. 우리는 자주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점점 더 자주 다양한 형태의 외로움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가깝고 연결되어 있지만, 그것들은 참되고 지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시적이고 흔히 환상적인 관계들입니다.

교황님,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정한 희망으로 이끄는 진실한 우정과 참된 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교황님의 답변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인간관계, 즉 다른 사람들과의 우리의 관계는 우리 각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모든 남녀가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사실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은 유대관계로 시작되며, 바로 이 유대관계를 통해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는 근본적인 역할을 합니다. 문화는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해석하는 암호입니다. 사전처럼, 모든 문화는 고상한 말들과 천박한 말들, 가치들과 오류들을 모두 담고 있으며, 우리는 이것들을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진리를 찾으면서, 우리는 단순히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선택들을 통해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진리는 참으로 말과 사물을, 이름과 얼굴을 연결하는 유대입니다. 반면 거짓은 이러한 측면들을 분리시켜 혼란과 오해를 낳습니다.

이제 우리 삶을 특징짓는 많은 문화적 연결들 중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는 "사람들 간의 대화, 만남, 교류의 특별한 기회이자 정보와 지식에 접근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구들은 상업적 논리와 우리의 관계를 수천 번의 단절로 파괴하는 이해관계들에 의해 지배될 때 모호해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때때로 "소통, 광고, 소셜네트워크의 메커니즘들이 우리를 잠들게 하고 소비에 의존하게 만드는 존재로 바꾸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계들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거나 불안정해집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오늘날에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하며, 누가 우리의 친구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들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불안해집니다. 도구가 인간을 지배할 때, 인간은 도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장의 도구이자 동시에 상품이 됩니다. 오직 진실한 관계들과 안정된 유대들만이 선한 삶의 역사를 키워갑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모든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 선한 삶을 갈망합니다. 폐가 공기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진정한 우정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수 세기 전,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포착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 마음의 갈망이며, 오늘날의 기술 발전을 알지 못했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격동의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고, 자신의 마음의 외침을 침묵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우구스티노는 진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진리를, 지나가지 않는 아름다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것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진실한 우정을,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찾았을까요? 이미 자신을 찾고 계셨던 분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건설했을까요? 영원한 자신의 친구이신 그분을 따름으로써입니다. 그의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어떤 우정도 참되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면 참된 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참된 형제애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와 사랑과 존경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행복하고 영원할 수 있습니다." "친구 안에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실로 친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라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우정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여러 도움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북극성입니다. 복자 피에르 조르조 프라사티가 썼듯이, "신앙 없이, 수호할 유산 없이, 진리를 위한 투쟁을 지지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정들이 예수님과의 이 강렬한 유대를 반영할 때, 분명히 그것들은 진실하고, 관대하며, 참된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법을 아십시오. 우정은 참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정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우정은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

**질문 2 -- 결정의 가치**

**교황님,** 우리의 세월은 미래의 삶을 방향 짓기 위해 내려야 하는 중요한 결정들로 특징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분위기로 인해, 그러한 결정들을 계속 미루고 싶은 유혹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현재의 불안정함으로 표시되어 있을지라도 달성 가능한 목표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부님, 저희가 여쭙니다: 결정할 용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감하게 되어 참된 자유의 모험을 살아가며, 근본적이고 의미 있는 결정들을 내릴 수 있을까요?

**교황님의 답변**

결정은 근본적인 인간의 행위입니다.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그것이 단순히 무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탁월한 선택은 실제로 우리 삶에 대한 결정입니다: 당신은 어떤 종류의 남자가 되고 싶습니까? 어떤 종류의 여자가 되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삶의 시련을 통해 선택하는 법을 배우게 되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이 기억은 탐구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무상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결과입니다. 삶의 과정에서, 우리가 내려야 하는 결정들에서 이 은총을 인식하고 새롭게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임이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이 말한 것이 옳습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또한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과 같으며 이것이 때때로 우리를 막습니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안정된 토대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지탱하는 반석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반석은 우리보다 앞서고, 우리를 놀라게 하며, 우리를 무한히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바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그분 앞에서 결정은 우리에게서 어떤 선도 빼앗지 않고 항상 우리를 최선으로 이끄는 판단입니다.

선택의 용기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분은 온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이로써 인간으로서 우리 자신을 실현하는 길이 생명을 바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희망들에 부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5년 전,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꿈꿀 때 찾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것들 중 아무것도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을 그토록 매혹시키는 아름다움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순응주의에 휩쓸리지 않게 하는 그 근본적인 갈증으로 여러분을 자극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삶을 거짓되게 하는 가면들을 벗어버리도록 여러분을 재촉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다른 이들이 억누르려 하는 가장 진실한 결정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읽으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희망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사랑하는 이들의 말에서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식합시다. "주님, 당신은 저의 생명이십니다"라는 것은 사제나 수도자가 기쁨과 자유로 가득 차서 선언하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아내로, 나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하느님 사랑의 효과적인 표징으로 변화시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이고 의미로 가득한 선택들: **혼인**, **성품성사**, **수도서원**은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자유롭고 해방적인 자기 증여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결정들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죽음까지 포함한 모든 악에서 구원하신 **완전한 사랑**의 모상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는 이것을 두 소녀를 생각하며 말씀드립니다. 20세의 스페인 소녀 마리아와 18세의 이집트 소녀 파스칼레입니다. 둘 다 젊은이들의 희년을 위해 로마에 오기로 결정했었는데, 이 며칠 동안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희망의 순례자들인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의 가족, 친구들, 그리고 공동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당신 나라의 평화와 기쁨 안에서 맞아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밤비노 제수" 병원에 입원한 스페인 청년 이냐시오 곤살베스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

**질문 3 -- 선에의 부르심**

**교황님,** 첫눈에는 우리가 피상적이고 경솔한 세대로 판단받을지라도, 우리는 내적 삶에 이끌림을 느낍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는 진리의 원천인 아름다움과 선함에 이끌림을 느낍니다. 이 성야에서처럼 침묵의 가치가 우리를 매혹시키지만, 때로는 공허함의 느낌 때문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부님,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으며, 시련과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그분의 현존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교황님의 답변**

이 **희년**을 시작하면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희망은 실망시키지 않는다"를 뜻하는 ***Spes non confundit***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하셨습니다. 그 문서에서 교황님께서는 이렇게 쓰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선에 대한 갈망과 기대로서 **희망**이 깃들어 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는 말은 보통 우리의 양심을 포함하여 한 사람의 가장 내밀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선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된 사람들, 즉 우리에게 친절했고, 사랑으로 우리의 말을 들어주었으며, 우리를 도와준 사람들에 의해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반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함 안에서 빚어가는 데 기여했고, 따라서 매일의 결정에서 선을 추구하도록 여러분의 양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예수님**은 우리 양심의 형성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면, 구원의 **복음**인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의 삶의 방식을 묵상하고 더 인간다운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정의를 추구하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이로써 우리가 항상 이웃들로부터 받고 싶어하는 선함을 증거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신 **성체성사**에서 그리스도를 흠숭하십시오. 항상 우리 곁을 걸으시는 **선한 스승**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공부하고, 일하고, 사랑하십시오.

선한 것을 추구하는 모든 걸음에서 그분께 청합시다: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주님"** (루카 24,29 참조).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 없이는 저희가 바라는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는 저희의 선익을 원하십니다. 사실 당신께서는 저희의 선익이십니다. 당신을 만나는 이들은 다른 이들도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말씀은 어떤 별보다도 더 밝은 빛이며, 가장 어두운 밤까지도 비추기 때문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믿는 이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즉 그분을 진실하게 찾는 이들의 친교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모아 서로를 지지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세상은 정의와 평화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선교사들**을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미래는 희망의 증인이 되는 남녀들을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께서 친히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을 찬미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당신께로 이끄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저희를 만드셨고, 저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 주님, 제가 당신을 부르며 찾고, 당신을 믿으며 부르게 하소서." 아우구스티노의 이 말씀을 따라, 그리고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여, 사랑하는 젊은이들 각자를 주님께 이렇게 말하도록 초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저를 부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소망은 계속해서 당신의 친구 중 하나가 되는 것이며, 당신을 포옹함으로써 저 또한 길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의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를 만나는 이들이 제 한계와 약함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소서.**" 이런 말로 기도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대화는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분 안에서 일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저의 기도는 여러분이 기쁨과 용기로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